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상수의 마음



놓게 되었다. 가슴이 지나치게 두근대는 그 심장의 이상상태는 상수에 의해서 썩 나아졌다. 사흘 뒤부터 그랬다.

특히 누워있는 상수에게 거의 요괴나 잡귀처럼 귀찮도록 찾아오는 비몽사몽이나 꿈이 꾸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수는 잠을 마음껏 잘 수 있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병의 절반은 풀려나 있었다.

그런 상수를 그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효영이 찾아와 위로하였다. 효영은 상수가 온 이래 그의 몸 속에 숨겨져 있던 가슴의 병이 바로 풀려진 것에 한 가득 책임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권한 것도 효영이었다. 그것은 효영의 사념집에 상수를 데리고 다닌 일을 그대로 거듭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과연 효영은 사념이면 묘향산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고 호랑이를 잘못 만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다. 그의 화승총 조작에 앞서 호랑이가 차츰아 울라 그를 덮쳤기 때문이었다. 그런 위기를 상수가 치켜든 막대에 호랑이 앞발이 걸려 효영이 구출되었던 것이다.

"홍노(紅奴)의 덕을 보았네그려" 라는 장난스러운 감사는 효영이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것이 깨어난 뒤의 일이었다.

상수는 매우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창백하기까지 한 인상과는 달리 놀라운 손발의 호신술도 발달해 있었다.

아마도 그런 날랜 솜씨 때문에 중국의 한쪽을 역대로 괴롭혀 온 북방민족인 흉노에 전주어 부르는 별명을 얻었는지 모른다.

아니 그 별명은 꼭 들어맞는 것이다. 상수에게는 낮보다 밤을 끌어헤서 밤새 멀리까지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몽유병에 가까운 노릇이었다. 또한 함근데 주저

요컨대 그에게는 우주의 일이 이웃 또는 자취(자취)의 일이었다.

그런 상수인데 한때 빠져있던 효영의 주책에는 함께 하지 않았다. 시를 짓는 종류는 대개 강 기슈이나 산중의 경관(景觀)이 빼어난 곳이었다고 그런 곳에서는 시를 쓸만한 기녀(妓女)가 있었다.

그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제법 풍시조를 읊어내는 과부들도 슬며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회(社會)의 풍류인자라 그 끝에는 남녀 사이의 정분도 있게 되기 십상인데 그런 때 상수는 저 만방 소

반겼다.

"괜찮다네, 여기 온 인사처레이겠지... 그러나 저러나 인담스님이나 우녀보살님을 비롯... 여간 괴송하지 않네. 이렇게 침상만 지고 누워있음이."

"에끼 이 사람 칠성관이라... 이제 곧 관할을 짓일세."

하지만 상수로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우애의 대상인 효영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런 효영을 통해서 새삼스레 자신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무덤도에 온 것이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나무 뒤로 가서 혼자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노에게는 양로도 달리지 않았던 말인가" 라는 뜻은 말도 들어야 하였다.

그런 친구를 이런 심에 데리고 와서 덜컥 병석에 눕게 한 사실이 효영에게는 여간 민망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색(色)의 빛이므로 공(空)의 빛이 아닌가 하고 상수의 우애를 늘 새긴 나머지 이번에는 진짜배기 공문(空門-佛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공문에 들어 온 중생의 빛이 없고 있는 것이었다.

"좀 어머신가?" 라는 효영의 온근한 위문에 상수는 말뚝뚝한 눈길로 효영을

곳을 찾아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수많은 종류로 이 세상에 널려있어도 한 그릇 하나 태어나는 때와 곳이 분명하고 죽는 때와 곳도 정해진 것이었다.

바세게만 하더라도 이 허공계의 까마득한 수미산 우주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써 먼저 해와 달 그리고 태어난 날과 때를 기동삼아 한 목숨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축복의 일로 삼고 있다.

또한 그런 목숨이 이 세상을 산 나머지 바다의 밑바닥이나 긴 겨울이 지나간 뒤의

안 땅이 녹을 무렵에 숨쉬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저 남방에도 차라리 저겨운 우계(雨季)의 어느 날보다 건계의 습기 기산 날에 죽는 노인이 많다 하거나 이렇듯이 삶과 죽음은 하염없이 정해진 바를 여기저기서 쫓고 운명하는 우주의 사업이기도 하였다.

상수는 그 자신의 죽을 것을 벗의 빛나는 도(道)의 힘에 비추어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해가 진 뒤에도 남아 있는 선홍(鮮紅)빛 눈물에 깨어드는 밝은 노랑과 암청색의 길다란 띠와도 같은 구

람뜰에 대한 새삼스러운 외경감을 상수의 병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가 괜히 이런 일을 도모한 것인가, 아니 나 자신이 벌써 이곳에 온 일을 뒤늦게 알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가 없어졌다.

"부디 자네만은 코끼리 한 마리를 다 만져보시게나."

"무슨... 무슨 말인가."

효영으로서의 이곳에 건너오기 전에 알게 된 코끼리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 효영은 병든 상수에게 의탁하고 싶었다 "부디 자네만은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수미산이 이웃집 일때를 기다리고 있네"

몸을 열어놓은 문밖으로 볼 수 있을 때의 실감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런 서쪽바다 수평선 쪽 하늘에서 그를 데려갈 마차라도 달려오는 것 같은 말발굽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추운가?" 라고 효영이 문을 달으며 하였다. 상수가 "아닐세, 문을 열어놓으니 내 마음 속이 짝이 시원하다네" 라고 말하였다. 사실인즉 상수는 어린 행자 우식 만우에게 부탁해서 북대(服帶)를 두르고 있었다.

어찌지 아랫배 부분이 허전해서 일어날 때나 내내 누워있을 때 그 부분이 허전해서였다. 그가 이 심에 오기 전부터 짐작한 바이지만 아마도 아랫배 단정(丹田)을 회두(迴頭)의 참구처(參究處)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른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방안은 미적지근한 불기운이 넣어져 있어서 땀냄새를 추운 개달리아 없지만 그 방안에 오래 누워있는 상수로서는 이 따금 물에 소름이 돋아나며 그의 가슴이 두근대는 중세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효영이 방에 들어와 한동안 고즈넉한 방안 공기와 바람의 활발한 공기를 바꾸어주는 한기(寒氣)가 도리어 상수의 의식을 안정시킨 셈이었다.

그런 환자를 위문하러 온 효영은 정작 환자의 무병하기까지 한 경지에 놀랐다. 일체를 객관적으로 체념할 수 있는 상수의 따뜻한 눈빛은 차라리 눈빛이 아니라 흡사 유리에 얼비친 그런 빛이기도 하였다.

불현듯 효영은 그런 상수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졌다. 병들지 않은 목숨이 병들어 허약해진 목숨에 어떤 귀의(歸依)의 뜻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영은 그가 데려온 사

많은 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리의 코끼리를 놓고 자기가 만진대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일이 그 이야기였다. 이른바 중생도상(衆生道相)이었다.

효영의 부탁인지 독백인지 모를 코끼리 이야기 끝에 그는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환자를 통해서 환자의 죽음을 미리 본듯 하였다. 아니 그가 죽은 뒤에 아주 하얀 빛으로 감싸여있는 약사여래(藥師如來)의 도슴도 보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상수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이 효영의 눈에 보였던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병든 사람은 그 자신의 병을 통해서 중생의 병을 보게 되고 그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보살을 뜻하게 됨으로써 끝내는 약사여래의 12원(十二願)이라도 세웠던 말인가.

당나라 한장(玄奘)이 번역한 (약사여래 12원)의 제 7원은 비정하다.

원컨대 나는 다음 세상에 얻을 때 만일 모든 중생(衆生-有情)이 질병에 걸려 구(救)할 수도 없고 풀릴 수도 없으며 의(醫)도 없고 약도 없으며 친척도 없고 집도 없으며 빈궁하여 고동이 많을 때 나의 명호(名號)가 한번 그의 귀를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병을 모두 제거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집의 필수품이 풍족하게 하고 위엄은 깨달음을 얻는데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데 상수는 그런 약사여래의 원하는 바와는 달리 수미산의 우주를 상상하고 있었다. 깊은 수행을 통한 직관이기보다는 차라리 칠없는 어린이의 꿈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가 상상하는 수미산은 막이나 익숙한 세상이 되고 있었다. 그 상상이란 가장 순수한 놀이이다.

"... 수미산이 내 이웃집일 때를 기다리고 있네."

이 말이 상수가 효영에게 던진 상상속의 산발이었다. 상수의 마지막 말이였다.

그림·조향숙

## 상

수의 간병은 그의 누이인 상수가 맡게 하였다.

인담의 침과 뜸이 너무 힘겨웠는지 좀 수월해진 병세가 다시 도졌기 때문에 우녀가 혈연의 치료를 제안한 것이었다. 짐승이 병들 때 흉구멍이름 파고 그 흉 구멍에 병든 동물이름 흉벽 솟이는 자연치료를 거론해지는 것에 견줄 수 있는 것이 혈연치료가 아닌가.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 야상(夜相)을 벗어남을 말하지만 중생은 아견(我見) 중생견(衆生見)의 뿌리가 깊은지라 자기의 나 자신을 그대로 실상으로서의 너로 알기 십상이다.

그런 경우는 상수의 정신적인 눈은 단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녀가 누이의

## 삶과 죽음은 하염없이 운행하는 우주의 사업이기도 하다 상수는 자신의 죽음을 어렵듯이...

간호만이 상수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한 것도 상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혈연이나 야상(夜相)을 방편으로 삼아 실상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암시도 없지 않았다. 아견이든 중생견이든 그런 집착을 가진 채 내달리는 과정에서 문득 제대로의 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수에게는 그의 놀라운 직관이나 영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 깃털의 누이가 집착해서 병구완을 함으로써 훨씬 마음을

안기보다 네 질기마다 다른 곳에 옮겨다니는 일을 딱 좋아하였다. 효영의 사념이나 중풍에 으레 상수를 동행시킨 까닭도 따지고 보아 상수 쪽에 있다.

그는 한밤중 별을 헤아리는 일을 아주 진지하게 한다. 화북불이 다 사된 이쪽 속에서 그는 파란 별빛 하나하나를 마치 바닷가 마을의 사람이 바닷가의 개펄에 나 있는 많은 구멍들을 다 뒤져서 작은 고동 따위의 괴류(貝類)를 캐내는 것 같았다.

## 생활 속의 불교 94

# 나를 돌아보는 수행에 모든 축복이 있다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 너무 느슨해도 그럴다.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야 제 소리를 낸다.

불법의 수행도 그와같다. 극한에 도전하려하거나 고행을 감내하는 것은 자칫 자신을 제물로 삼는 수행이 되고만다. 그렇다고 나태와 방만을 수행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위해 모종의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서책을 뒤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뭔가 좋은 방법일 듯 싶으면 며칠동안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다른 방법을 들으면 또 그 방법으로 옮겨 앉는다. 자신의 그와같은 방법 찾기가 또하나의 집착인 줄을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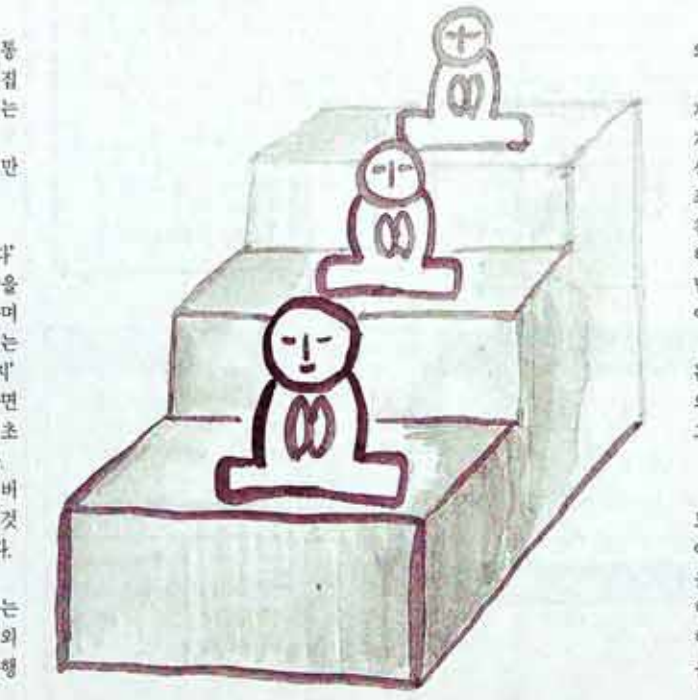
뭔가에 집착하는 한 그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룬다. 얻는다는 생각에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가령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그런 수행은 자신을 쪼먹는 일이 된다.

왜냐? 깨달음의 맛도 못보고 세월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곧 쉽다' 또는 '방학하리라'는 말을 듣고 망상을 몰아내려고 한다. 혹은 놀아야 한다며 애를 쓴다. 그러나 망상을 몰아내려는 생각은 또하나의 망상이다. '놀이야지' 하는 생각도 망상이다. 안 놀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놀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다면 그것 또한 망상의 일종이다. '덜' '방학'이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하려고 의식하는 게 아니다.

수행의 방편으로 좌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그것을 수행



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좌선은 그냥 앉아 있음, 바르게 앉음 그 자체일뿐이지 달리 무엇인가를 위해서 앉는 게 아니다. 진정한 좌선은 그래서 선방에만 있지 않다. 행주 좌와가 그대로 참선이요 24시간이 곧 참선수행이라 하는 것은 얽고 머물고 행하는 일체가 무엇을 위해서 함이 아닌 그냥 함 그 자체일 때 그렇다는 뜻이다.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에 의지하려 한다면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림자에 안된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므로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남을 위함도 아니다. 선을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일을 바라서도 아니다. 더구나 누구와 수행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수행 자체가 목적인 수행이면 된다. 앉았을 때는 앉음 그것이 목적이요 행할 때

는 행 그것이 목적이면 된다. 거기엔 야상·인상 따위가 붙을 틈이 없다. 있다면 다만 생명현상이 있을뿐이다. 생명과 함께 흐르는 마음, 그저 흐르게 놓아두는 법이 있을뿐이다.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려면 때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런 사비 분별의 마음이 없이 그냥 돌아보면 된다. 그 외에 좌선의 방법이란 없다.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만으로 족하다. 돌아보면서 뭔가 알아내려 해서도 안된다. 알고자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생명과 함께 자연스레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진이다.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는 수행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다.

협찬: 주인공